조선일보 - 1930 . 10. 17/ 4면/ 2단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六)

申南澈

氏의 論한 形而上學과 宇宙論은 Sein과 werden과를 區別하고 肉體와 靈魂과의 對立을 論함으로 말미암아 自身의『機械的 變遷主義』와『活精的 創造主義』에 對한 見解를 術하얏다고 보겟스나 그는 紀元前 六世紀의 哲學者들이 世界 發生記(koSogonia)에 잇서서 이 傳統的 一者를 求하얏슴에 對하야 經驗에 照隱하야 世界의 自然(phYsis)과 根源(aRkle)를 求하엿든 것보다 더 進展된 形態의 主論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웨? 그는『經驗論을 自然히 多元論을 主張하게 된다』고 喝破한 經驗의 解釋이 그로 하야금 素朴한 實로 論의 領域에서 一步도 脫出하지 못한 것을 例示함에서 不過한 까닭이다. 나는 이곳에서 一元論이냐 多元論이냐 等의 陳腐한 理論을 흐되푸리하는 愚을 犯하지 안흐려함으로 이것으로써 그의『實在(이것은 形而上學的 神秘者이다.) 探求의 航海』에 對하야 以上 더 云謂하지 안켓스나 오직 韓氏가 말한 것과 가티『데칼트』의 物心 二元論이 單只『心的 現象 及 物的, 現象과의 關係는 어써하며 어써케 兩者가 並存하게 되엿는지하는 矛盾 等을 合理的으로(傍點 筆者) 說明한』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는 그에게 잇서서의 思惟와 延長은 그의 形而上學의 特色은 特色이나. 또한 强點이엿고 神에 對한 兩個의 性으로서 存在한 것이엿다.

다시 視野를 擴大하여 韓氏의 은저리를 버서나서 現在의 아니 “Zuriick zu kant?"後의 哲學界를 좀 回顧하여보자.

十八世紀의 佛蘭西 唯物論을 가지고 哲學의 通俗化요, 그것의 骨奮化라고 憤慨한 非難, 攻擊, 中傷 等의 옷갓 □騷는 그것의 社會性 歷史性을 排除하여버린 것이엿다. 그 □騷 또한 反對者로서의 根據와 理由를 가진 것이엿스나 그러나 그것을 오직 客間에서 論談된 墜落이라고 排擊한『칸트』에의 歸依運動은 우리의 實踐과 그 距離가 級激的으로 머러저 갓다. 그리하야『롯체』가 말한 것과 가티 그들은 칼을 오직 날카롭게 하기 爲하야 만가는 것과

가티 認識論的 硏究는 非常히 細密히 論理的으로 進行되엿스나 그러나 그들은 物件을 베히랴고 그 칼을 가는 것은 아니엿다. 칼을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베히랴고 가는 것이라야 비롯오 그 가는 意義가 生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唯獨 날카롭게 하기 爲하야 가는 것이엿다. 認識論的 勞作은 實踐에 對한 關與에까지 分化된 때에 그것 獨自의 意義보다 더 큰 述語를 添加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은『라메추리』의『人間機械』에서 그 絶頂에 이르것다고 볼 수 잇는 十八世紀의 啓蒙思潮를 哲學의 俗流化라고 指彈하엿다. 그러나 그것은 韓稚振氏가 混同한 것 가티(混同은 區別과 類型을 內包한 그것에까지 分化될 必然性을 가진 것이라고 觀察 할 수 잇는 것이나 우리의 韓氏에게는 그의 形態에까지도 到達하지 못한 處地에 잇다고 볼 수 잇다) 또한 그가 結果한 俗流化와는 全然 反對의 것이엿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一般化이엿고 決코 韓氏가 持來한 俗流化는 아니엿다. 그 싸에는 이곳저곳의 客間에서 哲學이 談論되엿다. 그리하야 그것의 大衆에의 浸倫과 把持는 卽 實踐과의 握手가 佛蘭西의 大革命을 來케한 것을 우리는 到底히 沒却 할 수 업다. 어써한 歷史家든지 佛蘭西 大革命의 重要한 一 原因으로서의 啓蒙哲學의 影響을 들지 안는 사람이 업슴을 우리는 본다.

우리는 十九世紀의 唯物論에 對한 獨逸 哲學者들의 非難을 드를 수 잇다.『칸트와 쇼펭하우어를 가진 우리 國民의 사이에 唯物論이 그 가티 普及되엿다는 일이 그 얼마나 고약한 일이냐』고『파울센』을 憤慨케하고『월리목』으로하야금『哲學은 이곳에 잇서서 그 死點에 다다럿다』고 말하게 한 哲學이 어찌하여 모스코의 大革命을 誘起하엿는가를 생각 할 때는 哲學의 一般化가 卽 眞正한 大衆에의 浸倫이 얼마나 意義잇는 것인가를 잘 理解 할 것이다. 그러나 그 大衆化우에도 말한 것과 가티 大衆 自身의 內的 要求에 依하야 企望 될 바이고 決코 어떤 哲學的 作爲에 依하야는 되지안흘 것이라 생각한다.

무슨 싸닭이냐?

『헤겔』의 體系를 平易化하야 一般人의 斷片的 知識으로도 理解 할 수 잇게 만든다고 假定하자. 이것에 對하야는 거의 不可能하다는 것을 누구나 餘地도 업시 是認 할 것이다. 般使成就하엿다 하드라고 그것은 決코『헤겔』의 全 面目과 內容을 傳하는 것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成就한 結果를 그 成就한 이만티 一般化하엿다고 볼는지도 모르나 그것은 우에 韓氏가 結果은 俗流化에까지는 미치지 안흘는지 몰라도 또한『헤겔』이 俗流化라고 보지 안흘 수 업슬 것이다. 一人의 哲學者가 그의 體系를 組織 할 때에는 그 自身의 思惟內

容을 담는 獨特한 新語의 造出이 非一非再이다. 그에게 獨自한 것을 在來의 意味內容을 가진 語를 가지고는 到底히 完全한 表出을 엇지 못할 때에는 從來 用語에 新 內容을 담는 것만으로는 滿足 할 수 업는 것임으로 新語의 作成은 不可 難의 것이다.

새 술은 새 술盞에 박게는 불 수 밧게 업는 것이다.『칸트』든지『헤겔』또는『훗세-ㄹ』等을 解의 張本人이라고하야 求하는 것은 不當한 일이다.

이제『헤겔』에 잇서서의 例를 完全히 그의 自身 외 思惟에 依하야 理解하자면은 그의 獨特한 것에 또한 그의 獨自한 것에 依하야 理解하지 안흐면 아니 될 거다. 그가 新語를 造出한 因由가 존재의 語가 그의 獨自한 것의 表出 不適當함으로이엿슴으로 그것의 哲學에 對하야 一般 常識 水平線에 處한 多數한 사람에게 理解함에는 强히 그가 不適當하고 이런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그에는 그것은 벌서 그의 特自性 滅殺를 招來하지 안흘 수가 업슬 것이다. 싸러서 一種의 俗流化를 果케 할 것이니『헤겔』이면『헤겔』의 眞面目은 到底히 會得하지 못하고 말 것이 아닌가?